

여성문학연구

특 집

## 여성의 전통지향성과 현실경험의 문제<sup>1)</sup>

- 최근작 내방가사에 대한 보고 -

이정옥

## 여성의 전통지향성과 현실경험의 문제<sup>1)</sup>

- 최근작 내방가사에 대한 보고 -

이정옥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재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의 내방가사 '글하기'를 통해 내방가사 창작과 향유의 일반적이고도 공통적인 문학의식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것이 전대의 내방가사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서 '글하기'는 현재의 내방가사 향유자들이 내방가사를 위시한 일련의 문학적 행위를 그들 스스로 명명한 용어이다. 이 명명은 내방가사가 여성의 일상문학 내지는 생활문학으로서 당대 여성의 일상적 삶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경북 일원에서 고령의 여성노인들에 의해 내방가사의 창작과 향유는 20세기를 지나 21세기 초인 현재도 문학행위로서 당당히, 그리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문이나 개인 차원의 제책본 자료도 많이 발견된다. 특히 안동의 사회단체 '내방가사전승보존회'는 내방가사 창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내방가사경청대회'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내방가사 향수와 유통에 새롭고도 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글하기'로서의 내방가사는 여성의 교양과 생활문학으로서의 내방가사의 창작과 향유방식과 독서행위까지 포함한다.

---

1)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1-002-A00055)

최근작 내방가사의 주요 특징은 '呼名'과 '공동체 지향의식'으로 요약된다. 최근작 내방가사와 '呼名'의 문법을 예외없이 채택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존재성 확인절차이며, 이것은 화자(작자)의 정체성을 가문의식에서 찾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향한 그들의 의식체계는 전통적 가족 해체의 위기의식에서 발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내방가사, 여성생활문학, 일상적 글쓰기, 내방가사경향대회, 내방가사전승보존회, 호명(呼名)

## 1. 서론 : 일상문학으로서의 내방가사

현재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여러 지역에서는 전통적 문학장르인 내방가사의 향수의 전통과 유통이 온존하고 있다. 고전문학과 근·현대문학의 단절은 가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통적 문학장르의 전승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방가사는 예외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내방가사의 향수 방식은 보존과 변화의 양면성을 함께 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최근의 향수 방식과 내용의 두드러진 변화상은 주목할 만하다.<sup>2)</sup>

예를 들면 내방가사 향수의 현장에서 만나 면담에 응한 다수의 내방가사 향유자들은 가사를 짓고, 베끼고, 읽는 행위를 통칭하여 '가사한다' 혹은 '글한다'라고 표현한다. 이 경우 그들은 내방가사가 문학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듯해 보이며, '노래한다'고 표현하는 민요 구연 행위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문학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즉 '글한다'는 행위는 문자라는 유식한 매체를 통해서 '글'을 창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사하여 전승하며, 글을 읽는 행위 등을 함께 포괄하는, 이를테면 전면적 문자생활에 대한 그들만의 독특한 통칭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2) 이정옥, 「현재성의 내방가사」, 『국제고려학』제7호(국제고려학회, 2001) 참조.

런 의미에서 ‘글하기’는 내방가사 향유자에게 내방가사는 일상의 문학이며, 내방가사를 향수하는 전통은 그들에게는 문학적 일상이라는 인식을 가능케 한다. 일상이란 “전승 속의 대다수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고생하면서, 또 가끔씩 과시적으로 소비해가면서 일궈냈던 삶과 생존”<sup>3)</sup>이라면 내방가사를 향유하는 행위를 ‘글한다’라는 일상적 행위로 표현하는 내방가사 향유자들이야말로 문학을 생활 속의 문학을 일상화한 셈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방가사를 일상문학이라고 전제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현재 창작과 향수가 진행 중인 최근작 내방가사 작품군에서 드러나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요소에서 발견되는 여성의 문학의식을 고찰하고 이전 내방가사와의 변화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내방가사 향유자의 주류층인 여성노인들의 내방가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방가사 향유자들의 문학 장르적 내지 문화양식적 전통지향성의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내방가사의 향유층이 여성노인들의 생애경험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적 경험도 흥미로운 논의과제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고찰방식은 내방가사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 당대 여성들의 일상적 삶에 대한 인식의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데 있다.<sup>4)</sup>

내방가사는 경북의, 현재의, 익명의, 다수의 여성<sup>5)</sup>에 의해 일상적으로 향

3) 알프 뤼트게 외 지음, 이동기 외 역, 『일상사란 무엇인가』(청년사, 2002), p.16.

4) 전미경은 내방가사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개화기 남존여비적 일상을 잘못된 현상으로 비난하면서 ‘남녀동등’이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계몽담론의 주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많은 여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데 주목하여 개화기 당시의 여성들은 이러한 계몽의 주장을 포함하여 자신을 둘러싼 일상을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를 탐색한 흥미로운 논문이다. 전미경, 『개화기 가족윤리의식의 변화와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5) 여기서 ‘여성’은 계층(의식적일지라도)과 연령층을 제한한 범위에서 내방가사 향유자라는 의미로 잠정한다.

유되는 문학이라면 일차적으로 여성의 일상문학으로서의 내방가사에 대한 보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내방가사 향유자들이 고령의 여성노인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여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생애와 일상의 삶의 문학인 내방가사는 이전까지의 내방가사와 차별성을 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2. 최근작 내방가사에 대한 보고

내방가사는 향유지역의 경북 지역 편중성, 작품의 다양성<sup>6)</sup>, 작품의 다양성에 기여한 전승방법의 이중성<sup>7)</sup>, 향유자의 익명성<sup>8)</sup>, 고전문학 장르 중 유일하게 전통적 문학 양식의 속성<sup>9)</sup>을 고스란히 지니면서, 현재까지도 향유되는

6) 권영철(1979)에는 1955년부터 약 25여 년에 걸쳐 수집한 약 5,000필 이상의 내방가사 중 113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권영철(1985)에서는 5,198수 중 신변탄식류 900수 중 88수를 수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7) 필사와 낭송.

8) 현재도 경북지역의 양반가에서는 '택호'가 내방가사의 향유자인 부녀자 간이나, 친족과 이웃 간에도 호칭어와 지칭어로 범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되는 자료집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밝히고 있어 익명성의 특징은 없어지는 추세라 할 수 있다.

9) 근대전환기를 거치면서 일본을 통해 서구의 신문명이 도입되면서 급변하는 사회 현상이 문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고, 신식학교가 설립되는 등 근대 문학의 여건이 형성되어, 소위 개화기문학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문학은 고대 문학과 근대 문학의 과도기적 형태로 교량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통 문학을 계승하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시가의 경우, 개화가사와 창가의 모습이 선보였으며, 이것은 최남선의 신체시 등을 거쳐 자유시로 발전되어 갔다. "개화가사는 1894년 개혁 이후 1910년 국토의 일제강점 때까지 발표된 작품으로 범주화된다." (장성진, 1991) 이전의 가사가 개화가사로 발전, 그 특유의 문학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방가사의 담당자들은 그들의 문학양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방가사를 제외하면 가사의 생명력은 이쯤에서 끝난다.

현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0)</sup> 사회적 조건들이 변화하게 되면 기존의 문학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는 제도화 과정을 거친다는 명제가 내방가사에서만큼은 예외라 할 만하다.

내방가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내방가사의 창작의 하한선을 20세기로 인정하고 있다.<sup>11)</sup> 현재 내방가사 연구 텍스트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방가사 1』과 『규방가사 신변탄식류』<sup>12)</sup>에는 개화기를 거쳐 해방 이후부터 20세기 작품이 많다. 그 중에는 1950년대부터 80년대 작품까지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sup>13)</sup>

가사작품집으로는 최초로 『회갑기념 은촌내방가사집』을 발간한 조애영<sup>14)</sup>은 내방가사 작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경북 칠곡의 벽진 이씨 가문의 『이내말씀드려보소』와, 대구 경주 최씨 가문의 『내방교훈』은 가전본 형태의 유인본이다. 가장 최근 인쇄 발간된 자료로는 『雲鶴集』<sup>15)</sup>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가문세전본으로서 가문 내에서 보관되어오던 자료를 후손이 영인하고 그것을 다시 활자화한 영인본과 활자본 복합형태의 자료집이나 배포가 주로 가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문적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10) 이정옥, 「내방가사 향유자의 문명인식과 표출양상」, 『문명의 만남 : 공존인가, 충돌인가』,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학술 대회자료집(2002. 봄), p.40.

11)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p.30.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 시가사의 구도』(소명출판, 1998), p.97.

이정옥,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여행경험과 사회화」, 『경주문화논총』 제3집(경주문화연구소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0).

이정옥, 「현재성의 내방가사」, 『국제고려학』 제7호(국제고려학회, 2001).

이정옥, 위의 글

12) 권영철, 『규방가사 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_\_\_\_\_, 『규방가사 신변탄식류』(효성여대 출판부, 1985).

13) 이정옥, 앞의 글, p.266.

14) 조애영, 『은촌내방가사집』(금강출판사, 1971).

15) 전용환 편, 『雲鶴集』, 운학문집간행위원회(서재문화사, 2002).

1980년대 활발하게 강행된 지방 향토지 중 경북 도내의 시군이나 문화원에서 발간한 향토지 속에는 내방가사가 다량 수록되어 있다. 또한 봉화문화원에서 발간한 『민요와 규방가사』(1995), 영천시에서 발간한 『규방가사집』(1988)에는 총 51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대준은 『낭송 가사집』1(1986), 『낭송 가사집』2(1995), 『안동의 가사』(1995)을 통해 개인적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수집한 가사를 집대성한 자료집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현재 경북에서는 제책본 형태나 두루마리 형태의 필사본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sup>16)</sup>을뿐더러 아직도 ‘안방 장롱 속에 묻혀있<sup>17)</sup>’는 미발굴의 내방가사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다양한 자료집 속에는 창작시기를 밝힐 수 없는 작품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에야 창작된 가사가 매우 많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내방가사향수의 방식이 최근 발견되었다. 그것은 내방가사를 전승·보존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단체 활동이 경북 안동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가시적인 업적과 성과에 대한 보고이다.

사회단체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회장 이선자)는 1997년 본회를 창립하여 제1회 내방가사 경창대회를 개최한 이래, 2002년 4월 27일까지 제6회 경창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총 6권의 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을 발간하였으며, 최근 그것들을 집대성하여 두 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sup>18)</sup>

1.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수록된 내방가사를 통하여 그 시대 안방 부녀자들의 삶의 모습인 기쁨과 애환, 풍자와 해학, 교훈 등의 내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반추되기를 기대합니다.(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 발간사)

16) 이정옥 편, 『영남 내방가사』1-5(영인자료집) (국학자료원, 2002).

17)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 제5회『내방가사 경창대회 원고모음집』(2001), p.4.

18) 『영남의 내방가사』1, 2(도서출판 한빛, 2002).

2. 안동지방은 사대부 집안이 많고 내방가사가 성하였던 곳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안동처럼 내방가사를 지금까지 짓고 노래하는 곳이 없는데 유일하게 안동은 옛날 모습 그대로 부녀자들이 가사를 지어 노래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 격려사)

3. 내방가사를 계승하고 오늘날의 정서에 맞추어 발전시키는 모임인 내방가사 보존회는 그래서 안동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단체이며...(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 축사)

유교문화, 또는 조선시대의 양반문화가 상당히 온존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동의 지역민들은 내방가사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다. 여성 향유자뿐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내방가사를 짓는 전통은 아름다운 것이며, 현재도 전승되는 전통이니, 발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여야 할 가치 있는 문화라는 인식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영남의 내방가사』<sup>1)</sup> 1, 2에는 모두 145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sup>19)</sup> 발간사에 의하면 응모한 작품수가 실제 수록한 작품보다 훨씬 많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내방가사 향유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그 수는 얼마나 될까?

이정옥(2001, pp.192~197)은 2000년 경상북도 5개 지역, 5차례에 걸쳐 실시된 향유자 현황 취재 결과 총 99명의 제보자 인적사항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sup>20)</sup> 앞서도 밝혔듯이 대다수의 내방가사 향유자들은 이전 시대에 계층적으로 양반이었다는 우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여성노인들이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제보자 연령대의 하한선을 50대로 볼 수 있으나, 실제 향유자들의 연령대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70대에 속한다. 그들은 식민

19) 수록된 작품 중에는 가사가 아닌 민요나 제문만 아니라 사둔지 등의 편지글도 있다.

20)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 이선자 회장에 따르면 위 단체에 소속된 회원은 약 150명 정도라고 하나, 안동 이외 경북 타 지역의 내방가사 향유자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지시대에 태어나 광복과 한국전쟁을 겪고, 근대사 속에서 급변하는 경제성장의 빛과 그늘을 지나는 등 격변의 현대사를 살아온 이들이다. 학교교육을 받은 이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가 많고, 개인적으로 어깨 넘어 한글을 깨쳐 문맹을 면한 이들이 내방가사 향유에 있어서는 더 적극성을 띄고 있다.

### 3. 전통지향성과 강화된 문법 : 호명(呼名)

최근작 내방가사의 경우 1인칭 화자인 '나'의 상대적 청자를 호명하는 문법은 매우 관습적이다. 내방가사가 남성작 가사의 모방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양반가사, 또는 이전 시기의 가사의 경우보다 호명의 언사로 가사의 서두가 시작되는 최근작 내방가사의 특징적 양식이다.<sup>21)</sup>

이정옥은 내방가사의 서사에서 상용적으로 실행되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부름말 형식을 담화 형식의 구조로 파악하고 화자의 다양한 언술방식은 작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내방가사의 언술구조를 다층적,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언술구조를 다시 '화자 독백체 형식을 통한 자기 경험의 표출', '명령법 화법에 의한 규범의식의 표출', '3인칭 객관화 형식을 통한 현실 인식의 표출' 등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 중 일인칭 화자가 상대하는 청자의 성격과 작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지시성과 고백성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정옥은 이 언술방식을 작자가 작품 전면에서 대상을 불러내고 작품 향수의 대상을 설정하는 기능적 유효성이 있다고 하면서, 내방가사의 작자 혹은 화자와 청자간의 친

21) 이상보 편, 『이조가사정선』 수록 가사 41수 중에는 단 2수, 『17세기가사 전집』 수록 가사 41수 중 7수, 『18세기 가사전집』 80수 중 18수가, 최강현 편, 『기행가사자료 선집 1』 수록 45수 중 4수가 호명의 문법을 택하고 있다. 가사의 내용으로 보면 주로 교혼류의 가사에서 호명문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내방가사의 경우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말성의 정도와 비교하여 지시적 언사와 자기고백적 언사가 반비례적으로 표현되며, 주로 1인칭 화자 독백체 형식의 가사에서 기능하는 문법이 호명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sup>22)</sup>

그러나 최근작 내방가사의 경우에는, 향유자의 의식이나 주제와 상관없이 관습적으로 이 호명의 문법을 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1) 어와청춘 소년들이 이내말씀 들어보소(「오륵가」) / 여보시게 청년남녀 나의 말을 들어 보게(「교훈가」) / 어화세상 청춘들이 이내말씀 들어보소(「효자가」) / 반도강산 동포들이 명륵가를 들어보소(「명륵가」)
- 2) 나의귀한 자녀들이 이내말씀 들어보게(「나의일생가」) / 어화세상 벗님네야 여자유행 들어보소(「여자소회가」) / 어화어화 가소롭다 인간만사 가소롭다(「경력가」) / 어화우리 시주님요 이내소회 들어보소(「회고가」)
- 3) 어화규중 벗님네야 가자새야 가자새야(「화전가」) / 때종다 벗님네야 상춘가 절 돌아왔 소(「화전가」) / 어화세상 벗님네요 화투풀이 들어보소(「화투풀이 가」) / 화우리 동기들 아 이내 소회 들어보게(「수연경축가」)
- 4) 어화세상 부녀님네 우리세덕 들어보소(「달실(유곡)권 세덕가」) / 진성이씨 여아들이 이말을 명심해라(「진성이 세덕가」) / 어화어화 딸네들이 내말잠깐 들어보소(「예안김 세덕가」) / 어와세상 봉우님요 안동역사 들어보소(「장렬가」)

1)과 같이 세상사람들이나 후손들에게 교훈을 하거나, 2)와 같이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소회하거나, 3)과 같은 놀이의 장소에서도, 가문의 위세를 자랑하여 자손을 경계하거나 간에 이 호명의 문법은 예외없이 채택되는

22) 이정옥, 위의 책, pp.12~31.

범용성을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호명 행위는 내방가사의 중요한 문법적 행위이며 의식(儀式)<sup>23</sup>이라 할 수 있다.

행위의 진정성은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지향하는 바에 있다. 그렇다면 내방가사의 향유자들은 무엇을 지향하기 위하여 호명의 의식을 제의적 절차로 택하는가.

호명은 일차적으로 가사의 독자, 혹은 청자를 환기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경창대회<sup>24</sup>와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 다중을 상대로 노래하듯 가사를 낭송한다면 청자환기의 문법장치는 매우 합목적적 기능이다. 또한 호명은 가사의 유통, 향유 범위를 지정하면서 가사 창작의 목적과 동기를 암시하기도 한다. 객체를 호명하는 텍스트의 언술문법은 실재하는 존재를 대상화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호명의 진정한 문법적 기능으로는 작자의 공동체 소속감의 확인 기능이 더 크지 않을까 한다. 공동체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개인적 존재에 대한 불안과 그것에 대한 저항의식이기도 하다. 공동체 내의 자기존재를 확인하고, 자기가 공동체에서 유리된, 개별적인 삶의 존재가 아니라는 자기존재성의 확인 절차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명 의식은 공동체 내적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고 그 유효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격변하는 세태의 변화를 목도하면서 거기서 분리되고 유리되어 마치 부유하고 있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도록 불안하다면 이 호명의 문법은 자기를 둘러싼 공동체 내의 동료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에 더없이 만족감을 주는 문법인 셈이다.

따라서 호명의식은 최근작 내방가사가 이전 가사의 양식적, 미학적 가치를

23) 호명은 강신을 위한 종교적 절차에서도 중요한 제의적 기능을 한다. 물론 종교적 제의 상황에서 불리는 노래는 인간이 부르는 신의 노래이며, 그 제의에서 불리는 노래에 관습적으로 사용된 노래의 돈호법과 명령법은 이 '호명'의 언술방식과 일치하나 종교적 제의에서 불리는 노래의 청자가 신격이라는 점에서 내방가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24) 이때 경창대회는 향유자(화자)의 '자기표현의 무대'라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면서 효용성을 극대화한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4. 현실경험과 역사 속의 일상성

##### 1) 공동체 지향의식 : 가문의식의 강화

호명의식에서 발의된 공동체 소속 의지와 자기존재성 확인 행위는 이후 작자(화자) 혹은 주인공의 정체성을 가문 내에서 찾는 일련의 과정에서 재확인된다. 이것은 내방가사의 작자층이 대부분 뿌리깊은 양반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장렬가」<sup>25)</sup>는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장인 이선자씨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하여 지은 가사이다.

선구시대 밀려들어 이리좋은 문장명필  
한권한자 사라지니 애탄하고 두려워라  
어느명인 찾아와서 교훈예절 가르칠까  
세종대왕 부르면서 두손모와 빌었더니  
조상님이 감동한가 소식없이 나서신분  
용상동에 이선자씨

-----중 략-----

이부인에 출생지는 안동예안 진성이씨  
퇴계선생 십사대손 안동권문 출가하여  
명가유문 능활하여 장수대학 설립하여  
팔년봉사 다받치고

25) 권분성, 『영남의 내방가사』, pp.107~112.

세종대왕에 의해 한글이 만들어져 ‘고부인’의 애환을 담아온 가사짓기의 유구한 여성 문학의 전통이 사라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여 다시 가사 창작과 향수의 전통을 되살려낸 이선자씨를 칭송하면서 이선자씨 개인의 업적은 가문의 내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주인공 이씨가 훌륭한 가문에서 출생하고, 훌륭한 가문으로 출가한 근본 반듯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위한 가문 내력의 나열은 그것이 현재 주인공이 훌륭한 행적의 당위성의 근거가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좋은 사람은 좋은 가문의 뿌리에서 배태된다는 가문의식은 이와 같이 내방가사 향유자의 보편적 인식이다.

「사향서원가」<sup>26)</sup>에서는 조상의 벼슬과 학문 자량을 번다하게 하면서 그 조상의 서원을 중창하고 향례하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가사이다.

어와여러 벗님네야 이내말삼 들어보소

해동조선 편소하나 우리일가 번족일세

고려조 장절공은 우리시조 장할시고

장절공 십세손에 정민공이 탄생터라

-----중략-----

그후세월 십삼만에 문정공을 탄생하셨네

가문일대기를 소상하게 기록하면서 현재 서원을 재건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출중한 조상의 내력을 장황하게 나열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가문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에 어김없이 유효한 배후장치가 된다. 그래서 “서원 현판 다시 보니 반갑기도 한량없다 쓸대없난 출가외인 자손됨은 일반이나 천세만세 우천세를 유림향에 축복일세”하며 비록 주인공이 출가한 딸이기는 하지만 집안(혹은 문중)공동체에서 자손이라는 소속감을 확인했으

26) 신분형 작, 『영남의 내방가사 2』, pp.231~236.

니 서원향례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기쁨을 공유할 자격이 있어 기념으로 삼을 만한 축하의 노래를 지었다고 하였다.

내방가사 향유자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무시할 수 없는 삶의 윤곽으로서, 거기에 소속된 자들의 사유와 행위를 통제한다.’<sup>20)</sup> 또 내방가사의 ‘공동체 의식은’ ‘가문의 위의를 확인하는 가문의식’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에서 유효하다, 가문의식은 전통적인 가족질서를 지향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족 질서가 이완되는 현실에 대한 향촌사대부가 부녀로서 느끼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전통적으로 향촌 중심의 집단적 거주형태에서 경향으로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가족 질서의 해체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워져 있다. 특히 이러한 불안감은 형제 동기간에도 혈연에 의한 운명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열어지고, 가문과 문중이라는 존재 단위가 점차 축소되면서 그 성원간의 관계맺음의 성격도 전면적 관계에서 부분적 관계로 변화하는 당시의 상황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sup>20)</sup> 가문의식은 양반가 부녀로서의 정체성을 떠받치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을 소중히 여기며 소속의 유대에 집착한다. 이 유대에서 잘려나가는 순간 그들은 모든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허공을 헤매는 망령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며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정신적 위기를 만날 때면 소속의 유대에 한사코 매달린다. 전통 사회에서 공동체는 거의 신성의 공간이며 그것에 대한 소속의 본능은 종교적 신앙에 버금간다. 전통사회 속에서 소속이 곧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 그의 신분, 그의 권리와 활동 영역, 그의 행과 불행, 이 모든 것은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27) 박현호, 「30년대 전통지향적 소설의 미적 특징 연구」, 『다문화 시대의 국어국문학 연구』, 제44회 전국국어국문학 학술대회발표집, (2001).

28) 유정선, 「『금행일기』에 나타난 기행체험의 의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pp.09~210.

유교적 가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족주의다. 가족이야말로 전통 사회를 특징짓는 공통체적 조직의 기본 단위이자 모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유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철학이며 그 윤리학은 개인적 윤리가 아니라 사회적 윤리다. 그리고 이 철학과 윤리의 원형을 유교는 가족 속에 설정했다. 여기서 다시 가족의 유교적 구조를 논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 자리잡은 거의 종교에 가까운 가족주의다.

가족주의는 가족 그 자체와는 다르다. 그리고 가족은 파괴될까봐 우려할 만큼 허약하지도 않다. 인간이 어찌 가족을 떠나 존재할 수 있으며 그의 생존을 지속시킬 수 있겠는가. 가족은 삶의 최소 공간이자 생명줄이며 마치 태아가 모태에 연결되어 있듯이 그것에 연결되어 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럴수록 자신의 소속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가족이 영원하듯 공동체도 영원하다.

그러나 가족의 모델이 바뀌어가고 있다. 경제·사회 개발이 급속하게 추진하는 근현대화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선호하고,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등 인간과 공동체를 경시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공동체의 파괴현상 가운데 가장 기본적 공동체인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이 문제다. 전통사회의 3대, 혹은 4대가 한집에서 거주하는<sup>29)</sup> 전통가족제도에서는 모든 일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개인보다는 가족 집단을 존중하는 가문중심적이었으며, 부권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 가족이었으나 산업화, 도시화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근·현대화된 사회는 가족보다 더 인간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것은 인간은 한 개체로서 존엄하다는 인식이다. 그는 전체에 예속된 존재로서 인정받을 뿐이었고 그 안에서 배당된 몫을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

29) 친족의 친밀도를 이룰 때 경북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담에 “한 정지 8촌 난다”라는 말이 있다. 8촌이라는 친족간의 촌수가 결코 멀지 않음을 이르는 의미다.

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소멸될 수 없는 자신의 존엄성에 눈을 뜨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 독립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위엄 있는 존재임을 깨닫자 자신을 얽매는 예속의 고리를 끊기를 원했다.

근대의 핵심적 이념을 ‘개인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인간의 한 개체로서의 존엄성, 다시 말해 그의 천부적 권리와 자유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면 쉽게 풀릴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는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개인들 사적 관계를 전적으로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제 서열과 계급에 따라 지배자와 예속자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고 소속이나 연고에 따라 평가되지도 않을 것이다. 전통사회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가족은 물론 갖가지 연줄, 혈연, 지연, 파벌 따위는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타인도 나와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인간이라는 사실 혹은 지극히 소박하게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이며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듯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새로운 사회 계약을 탄생시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근대화의 이 현기증 나는 변화 속에서 전통사회를 지탱했던 가치들, 전통적 관행, 사고방식, 인간관계, 감정적 풍토까지, 이전 사회에서는 유기적 기능과 효용성을 발휘했는지 모를 규범과 도덕과 윤리는 물밑 듯 밀어닥친 근대적 이념과 문물에 의해 뒤집어지는 가치의 대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가치의 무정부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현상 중의 하나가 노인 소외의 문제다. 노인의 부양은 전통적으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노인 세대들은 가족 안에서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제적 불안정, 질병 및 소외감으로 노인 소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내방가사 향유자인 노인 세대는 그들이 소외되는 변화는 몸소 체험하게 되자 가족을 지탱하던 규범이 다시 소중해지는 것이다.

사실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닫힌 공간이다. 공동체가 공동체인 까닭은 그것이 밖의 세계에 대해 닫혀져 있는데 있다. 개방 압력의 거센 바람 속에서



여전히 자신이 전통적 폐쇄공간 속으로 피신하려는 복고적, 회고적 성향은 강하며, 지금은 무력해진 계층적 우월주의의 유혹도 끈질기다.

내방가사 향유자들은 가문의식을 바탕으로 해체되는 가족질서를 재구하려는 지향성을 보인다. 그 방법적 윤리로 효라는 규범이 채택된다. 더구나 과거 규범적 삶을 살아온 그들에게 전통적 가족질서가 붕괴되는 현실은 더 없이 개탄스러운 상황이면서 자랑스러운 가문의 후예로서의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효가」에서는 내방가사 향유자에게 가혹하고도 돌연한 현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흥미롭다.

부생모욕 그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마는  
청년남녀 많은중에 효자효부 귀할세라  
 시집가는 새색 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가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열심히라  
 제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싫어 성을내며  
 시끄러운 아이소리 듣기좋다 즐기면서  
 부모님은 두말안해 잔소리로 빈정대며  
 자식들의 오줌똥은 손으로서 주무리며  
 부모님의 가래춤은 비위 상해 밥못먹고  
 과자봉지 들고와서 아이손에 쥐워주고  
 부모위해 고기한근 사울줄은 왜모르노  
 소가 앓아 누우면은 소침장이 찾아가고

늙은부모 병들어도 예사로히 생각하네  
 열아들을 어찌하여 한부모를 못섬기노  
 자식위해 쓰는돈은 계산않고 쓰면서도

부모위해 쓰는돈은 옴니암니 다따진다  
 한자리에 앉으면은 수많은돈 쓰면서도  
 늙은부모 위해서는 왜그리도 인색하오

하며 준엄한 꾸짖음을 하고 있다.

유교규범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가정 내의 절대규범은 ‘효’였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록 여성은 남성에게 삼종지도이데올로기에 묶여 효녀나 효부나 열녀로 존재하기를 강요당하였으나, 열심히 이들 규범을 수행하고 참기만 하면 언젠가는 가정 내의 존장자로서 ‘효’라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 ‘효’ 사상은 현모양처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일제를 거치면서도 변치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된 현대 사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족 형태, 즉 단출한 핵가족 형태를 지향한다. 자연히 부부와 그들의 자식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식세대는 부모효양이 절대적 가족 규범인 시대에 ‘효’를 다한 여성노인들에게 있어서 부모 섬기기를 병든 소 돌보는 것보다도 소홀한 현실은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그런 현실에서 ‘하늘보다 귀한 부생 모욕지은’은 공허한 잔소리로 치부되고, 아들 며느리 가리 것 없이 부모께 불효한 현 세태는 가혹하다.

가사가 “변화하는 현실과의 다양한 연관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점은 역으로 봉건이념의 선전을 위한 도구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19세기에 많이 창작된 오륜가류 가사가 19세기말 20세기 초반까지 줄기차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봉건해체에 저항하는 힘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는 고미숙<sup>30)</sup>의 언급은 20세기말, 21세기초에 여성에게도 여전히 그 힘을 잃지 않고 있다.

29) 친족의 친밀도를 이룰 때 경북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담에 “한 정지 8촌 난다”라는 말이 있다. 8촌이라는 친족간의 촌수가 결코 멀지 않음을 이르는 의미다.

30)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소명출판, 1998), p.97.

## 2) 비일상의 역사 공간 속의 여성 일상

일상적 인간의 삶은 일상의 힘에 의해 관습적 삶의 방식을 영위한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반복 및 순환구조다. 그러나 사회와 역사는 개인의 경험 양식을 규정하는 절대적 환경이다. 가사라는 장르가 구조적인 '문학의식'에 서보다는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생활의식'에서 비롯된 것<sup>31)</sup>이고 내방가사 속 여성의 삶은 그대로 그들의 일상이다. 이전 내방가사 속 여성의 일상의 삶은 그러했다. 태어나 자라서(「귀녀가」), 나이차면 결혼하고(「계녀가」), 여자로서의 삶을 탄식하기도 하다가(「자탄가」), 원부모이형 제할 수밖에 없는 출가외인으로서의 규범적 삶을 살면서 친정부모를 그리워하고(「사친가」), 이따끔 친정이나 시댁에서 베풀어지는 경사스러운 잔치에 참여 축하하고(「경축가」), 매년 열리는 화전놀이를 빠짐없이 참석하고(「화전가」), 이따끔 원거리 유람의 기회를 얻을 때면 그것을 기념하는(「유람가」) 글을 쓰는 것이 내방가사 향유자들의 반복적 일상 경험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일대기는 내방가사 속에서 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내방가사의 일상의 표면은 잔잔한 수면과 같았다. 그런 그들에게는 근대적 역사의 변화는 파편적이고 수동적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변화하는 역사의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존재이며, 그들의 사유체계는 따라서 전근대적이다.

그러나 현존 내방가사 향유자들은 역사적 삶과 개인적 삶이 중층적으로 점철된 생애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은 누구나 '내 겪은 일생을 책으로 엮으면 한 권으로 모자란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역경의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시대 경험의 예외자가 아니다.<sup>32)</sup>

개화기 이후 신여성은 사회적 자아로서의 주체적 여성이었다. 그들은 수동적 순응주의에 빠진 전근대적 여성(구여성)이 아닌 생생한 역사의 중심에, 맨 앞에서 있기를 자임한 여성이었다.<sup>33)</sup>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스스로

31) 김수경, 「창작과 전승양상으로 살펴 본 「쌍벽가」,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p.94.

32) 백순철이 소상하게 다루었다.

구여성, 시골색시라 칭하는 여성들이 있었으며, 내방가사 향유자들은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sup>30</sup> 또한 그들은 신여성들에 의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절망적인 생애의 슬픔을 겪기도 하는 여성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식골색시설은타령」<sup>31</sup>은 강한 전승력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에서 「시골여자 서른 사정」으로, 『영남의 내방가사 1』에서는, 「시골여자 서른가」로 개작, 전승되면서 이해와 공감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여름 서울로 공부하러 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재회하여 사랑을 나눌 날만 기다리는 시골 여성 주인공에게 남편은 신여성과의 결혼을 위해 이혼을 통고한다. “이혼이란 무슨 말고 시집은 지 칠팔 년에 오고가는 허다세월 누굴 위해 살았으며 기다렸노.”하며 한탄한다. 남편의 이혼통고는 악마같은 배신자의 소행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회한과 분노만 억제 못할 뿐이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강요된 이별은 오히려 강렬한 사랑의 자극제가 된다. 철저한 별리 뒤에 이루어진 몇 날의 짧은 만남을 고대하는 주인공에게 남편은 검붉은 원망과 분노만 안겨주었을 뿐이다. 남편의 긴 부재와 공백을 남편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한 여성에게 남편은 고통과 한숨의 지옥을 안겨주고 마는 고약한 존재인 것이다. 그 남편 뒤에 여성의 자유를 행동으로 실천한 신여성이 있었다. 사랑은 자기희생적일 때 아름답다고 하지만 주체적, 자발적 희생이 아닌 사랑이라면 설득력이 없다.

이해와 공감은 결코 강제에서 오지 않는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상대방의 삶에 대한 전폭적 이해만이 공존의 내적 터전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을 위와 같은 「식골색시설은타령」의 전승력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제강점의 치욕적 역사를 마감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한반도에

33)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생각의나무, 1999).

34) 최송설당과 조애영은 예외다. 백순철, 앞의 논문 참조.

35) 전미경은 이 작품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랑', '정'을 말하는 아내로서의 삶을 갈구하는 당대 여성으로서 삶을 읽어내고 있다.

주둔한 미·소 양 군의 38도선 분할로 남북이 분단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한 역사적 슬픔을 잉태하였다. 강대국 간의 동서 냉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 민족은 분단된 상태에서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을 북쪽에서는 공산정권을 각기 수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사이에 치열한 대결을 겪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그 후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대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4·19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이 시련을 겪게 되었다. 현재도 남북분단의 현실은 다양한 비극적 개인의 삶을 담보하고 있다. 한편, 경제면에서는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늘날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

식민지 시대를 지나 해방과, 곧 이어 한국전쟁을 거쳐 급속한 경제적 근대화를 이룬 우리의 현대사는 역사에서 수동적 주변인이었던 여성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낸다. 그 역사는 너무나 급격하고도 전반적인 것이었으며, 여성의 일상적 삶이 이 변화의 회오리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중군회심곡」은 ‘나라없는 설움 끝에’ 해방을 맞자, 이어서 남북 분단의 비극, ‘육이오란 사변’으로 골육상쟁의 비극을 거치고도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자칭 애국자라 하는 권력가, 재산가, 허울좋은 교육가의 탈을 쓴 자와 같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준엄하게 꾸짖기까지 한다. 회심곡이라는 제목에 맞게 전쟁 속에서 순직한 전몰장병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적 결말을 맺는 가사이다.

「추월가」는 위의 한국 현대사의 격랑에 온 몸을 맡길 수밖에 주인공의 삶을 장편가사로 보여주고 있다.

경인년 단오절<sup>36)</sup>사변이 났다.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피난민 대열에 섞여 서러운 유리결식의 삶을 살면서 ‘만고에 남을 역사’가 억만 페이지의 소설보다 더 기구하다는 탄식을 숨기지 않고 내뿜는다. 총알이 쏟아지고 폭격소

36) 1950년 6월 하순. 이 얼마나 내방가사다운 시간개념인가.

리와 화염이 진동하는 전장을 뚫고 13일이나 걸어 피난한 가난한 네 식구의 신산스런 삶은 질식할듯 밝은 보름달 아래서 더한 한숨과 눈물로 밤잠을 설친다. 배고파 우는 자식 앞에 속수무책의 부모 심정을 곡진하게 그려내기도 하고, 고대광실 부럽잖게 살았던 '나의 존재 밝히고 밝히는' 시련을 견디려고 하나 조변석개하는 '곤두라운'<sup>37)</sup> 세상 인심은 칼날 위에서 추는 춤같이 위태롭기 그지없다.

이들 작품을 포함한 최근작 내방가사에서 우리는 봉건적 규범 속의 추상적, 관념적 인간이 아닌 현실 속의 구체적 현실적 인간을 만난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사를 뭉뚱그려 대충 말하기는커녕 지난날 순간순간의 일들을 날 날이 기억, 반추하여 뼈아픈 역사 속의 처참한 개인의 형용을 적극적으로 노출한다.

## 5. 결론 : 내방가사의 전승을 위하여

본 연구는 현재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의 내방가사 '글하기'를 통해 내방가사 창작과 향유의 일반적이고도 공통적인 문학의식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것이 전대의 내방가사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서 '글하기'는 현재의 내방가사 향유자들이 내방가사를 위시한 일련의 문학적 행위를 그들 스스로 명명한 용어이다. 이 명명은 내방가사가 여성의 일상문학 내지는 생활문학으로서 당대 여성의 일상적 삶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경북 일원에서 고령의 여성노인들에 의해 문학행위로서 당당히 구현되고 있는 내방가사의 창작과 향유는 20세기를 지나 21세기 초인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문이나 개인 차원의 제책본 자료도 많이 발견

37) '위태로운'이라는 의미의 경상도 방언.

된다. 특히 안동에서는 '내방가사전승보존회'라는 사회단체까지 결성되어 내방가사 창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내방가사경창대회'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내방가사 향수와 유통에 새롭고도 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최근작 내방가사의 주요한 특징은 '呼名'과 '공동체 지향의식'과 격변하는 역사 속의 '여성의 일상문학'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최근작 내방가사가 '호명'의 문법을 예외없이 채택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존재성의 확인절차이며, 이것은 화자(작자)의 전체성을 가문의식에서 찾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향한 그들의 의식체계는 전통적 가족해체의 위기의식에서 발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시대에는 역사적 삶에서 주변에 위치하였던 여성들은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도 그들의 일상도 역사적 변화에 영향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방가사는 문학 양식적으로는 전통의 등지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양상이다. 전근대의 상태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기를 거부한 것처럼 보인다. 시대의 급박한 변화에 적응 못한다는 혐의를 못벗는다는 점에서 내방가사 향유자들은 세태 변화에 대한 거부와 수용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양면성은 막연한 향수와 추억에서 담보하는 과거지향적 측면이 아니라 계승하여야 할 가치로운 것이며, 현재성을 담보하면서 현대도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과거의 것을 지향하는 전통지향적 측면에서 내방가사는 일정부분 역사적 의의를 획득한다.

현재성의 내방가사는 우리 문학사에 존재하는 섬이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리감을 일정부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내방가사 향유자들은 섬에 간혀 세상으로부터 절대 유리된 사람이 아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그 섬을 여행하는-어쩌면 단체로 관광할지도 모르는-사람들이다. 여행의 목적이 일상탈출이 아니라 일상으로의 회귀라면 그들의 여행담인 내방가사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은, 일상의 '글하기' 일 것이다.

'글하기' 로서의 내방가사는 창작과 향유방식과 독서행위까지 포함한다.

내방가사의 창작(생산)-일차적 전송(유통)-이차적 전송(소비)의 경로는 내방가사의 전송 확대-팽창법칙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의 확장, 팽창, 변전의 형태가 내방가사 경창대회로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내방가사 향유자들은 글 밖에서 글 속의 화자를 들여다보고, 글 속의 화자는 글 밖의 향유자들을 의식한다. 독자(청자)의 믿음 안에서 내방가사는 쓰여지고 읽혀지는 확산과 변집의 역사를 계속한다. 그들의 ‘글하기’는 계속된다. ‘글하기’의 확산과 팽창의 힘이 확산과 변집의 효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경창대회라는 이벤트는 작자-독자의 관계보다 화자-청자의 관계가 결속성과 친밀도가 극대화되며, 공유의 인식을 고양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내방가사라는 특정문학양식에 대한 숭배 내지 신성화가 형성되어 그들의 전통적 문학 행위에 대한 자긍심은 강화되었다.

전통은 곧 우리의 존재양식이자 우리의 정신적 뿌리며 그것을 떠나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감싸는 우리의 정신적 공간이며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은 재창조되고 가능하면 보편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자신의 전통을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뽑내는 고식적인 사고를 벗어난다면 내방가사 ‘글하기’는 더 이상 ‘변방에서의 글쓰기’가 아닐 수 있다.

내방가사의 향유자는 내면화된 규범의식과, 유교적 엄숙주의, 개인의 의지가 분리될 수 없이 혼용된 자아를 소유하고 있다. 계몽적 고고한 의무와 현실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 존재성을 위협, 공격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최근작의 작품도 삶의 노년기에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한스러운 심경을 토로하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예술방식도 삶의 구체에서 멀어지고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고답을 면치 못한다는 혐의도 감내해야 한다. 화소와 화소, 단락과 단락 사이의 정서의 전환도 정형이 없고 돌연하다는 점에서 문학적 미숙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그러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자신의 삶을 평생 점점 형태로 담담히 술회



한 그들의 일생담인 내방가사는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여성의 일상사이자 미시사(微示史)이다.

■ 필자 : 위덕대학교 교수

**Abstract**

**The tradition-oriented feature of women &  
the issue of reality experience**

– The report on recently-written Naebanggasa –

Lee, Jeong-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sure the general and common literary consciousness of Naebanggasa creating and entertaining through recently continued women's "doing writing" of Naebanggasa, and to investigate the distinction between these recent works and old Naebanggasa. The "doing writing" is the diction that Naebanggasa entertainers call to indicate a series of literary activities as well as Naebanggasa. This word is stemmed from women's recognition of daily lives through Naebanggasa.

The creating and entertaining of Naebanggasa is being made proudly by the elderly women in Kyungbuk province as a literary activity. And materials made for books on the level of family or individuals are discovered. Especially in Andong 'The group for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of Naebanggasa', which is a kind of social gathering, was organized. This group tries to continue the creation of Naebanggasa and makes active change in entertainment and publicity of Naebanggasa by the event of 'Naebanggasa reciting contest'. Naebanggasa as a 'doing writing' concludes creating and methods of entertaining, furthermore reading activity.

Briefly speaking, the main features of recently-made Naebanggasa are 'calling names' and 'community-oriented consciousness'. The reason that recent Naebanggasa chooses the grammar 'calling names' all the time is the step for discovering self-identity as being women. Also this feature tells women are looking for their integral identity in the consciousness of family clan. We can be sure that their conscious mechanism for community is caused by the fear of the destruction of traditional families.